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47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9월 1일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박장배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두 개의 원점
- 현행 몽골 지폐 도안의 역사 표상
- 칭기즈 칸과 '팍스 몽골리카' 그리고 제국의 지폐
- 현대 몽골의 독립과 독립 영웅 수흐바타르
- '팍스 몽골리카'의 현재적 의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박장배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두 개의 원점

몽골 정부는 1921년 근대적인 독립국을 표방한 해부터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1939년에는 몽골의 독립 의지를 표상하는 독립 영웅 담딘 수흐바타르(1893~1923)의 초상이 들어간 지폐를 발행했다. 1992년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몽골은 이듬해 도안이 변경된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변경된 몽골 지폐 도안에는 수흐바타르와 함께 강대한 나라의 꿈과 국민 통합의 취지를 대표하는 통합 영웅 칭기즈 칸이 새롭게 모델로 등장했다. 이 두 인물은 몽골국의 원점을 상징한다. 몽골국의 원점에는 몽골 고원을 넘은 대제국의 역사와 고비사막 북부를 차지하고 있는 독립국이라는 현실 간의 간극이 있다.

현행 몽골 지폐 도안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 동식물, 자연환경과 함께 몽골의 제국 경험과 사회주의 경험, 그리고 17~19세기의 불교화 경험이 비교적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 13~14세기의 몽골제국은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 몽골이 주도하는 평화)’를 구가했으나, 이후 만주 세력이 부상하면서 청의 지배를 받았다. 몽골국은 1911년의 독립 선언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후원 아래 1921년 독립을 이루었다. 이렇게 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1924년 복드 칸이 사망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2년 몽골은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70년간 유지해 온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났다. 그 후 30년 동안 몽골의 세계화는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전방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체제 대신 자본주의를 택한 몽골 사회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이웃한 두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했다.

몽골의 지폐 도안도 몽골의 역사적 처지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몽골은 칭기즈 칸의 나라임을 자부하지만, 칭기즈 칸은 사회주의 시절에 몽골 민족주의를 억압한 소련 세력

에 의해 언급하지 말아야 할 금기가 되기도 했다. 1992년 체제 전환 이후 칭기즈 칸은 중국과의 역사 귀속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글은 현행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몽골인의 역사의식과 그 역사적, 국제정치적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몽골 지폐 도안의 주요 소재와 보조 소재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세계사적 시각에서 몽골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몽골 지폐 도안의 역사 표상

지폐 도안에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역사적, 현실적 실력이 담겨 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지폐 도안에는 국가의 의지와 정통성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들어가 있다. 본질은 이러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폐 도안 자체는 국가 공동체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퍼즐의 일부로, 대표성이 매우 강한 지식재산 덩어리이자 일종의 압축 파일이다. 지폐 도안은 국가적 원점을 담은 가장 작은 역사·문화 교과서이며, 활용도 면에서 대표적인 국가 홍보 자료이기도 하다.

몽골의 지폐 도안도 국가의 의지와 정통성을 드러낸다.¹ 1993년에 발행된 몽골의 현행 지폐 도안을 보면, 최소 단위인 1투그릭(tögrög, төгрөг)의 앞면에는 수호자와 용기와 고귀함과 지속성의 화신인 사자가 있고, 뒷면에는 독립과 주권과 번영을 상징하는 연꽃 바탕에 소음보 문양이 있다. 5, 10, 20, 50, 100투그릭의 앞면에는 수흐바타르 초상과 소음보 문양이 있고, 뒷면에는 5겹의 어트경 텡게르(Otgontenger)산 아래 2마리의 야생마와 가문비나무 종류, 초원, 바위, 몽골 에델바이스가 그려져 있다.²



현행 몽골 지폐 1투그릭과 5투그릭의 앞뒷면. 인물은 수흐바타르이다.

1 1993년에 발행된 몽골 지폐의 전반적인 도안은 재능 있는 미술가 부템즈(M. Butemj)와 투무르바타르(G. Tömurbaatar)가 그렸고, 상세한 세부 사항은 영국 지폐 제조 공장에서 온 미술가 버트빅(G. Botvik)이 그렸다(Ts. Batsaikhan, 2018, *Currencies of Mongolia II*, The Bank of Mongolia, p. 183).

2 1, 5, 10, 20, 50, 100, 500, 1,000투그릭은 1993년에 발행되었고 5,000투그릭은 1994년에, 10,000투그릭은 1995년에, 20,000투그릭은 2006년에 발행되었다.



현행 몽골 지폐 500투그릭과 5,000투그릭의 앞뒷면. 인물은 칭기즈 칸이다.



현행 몽골 지폐 20,000투그릭의 앞뒷면

500투그릭과 1,000투그릭의 앞면에는 칭기즈 칸 초상이 있고 뒷면에는 대형 수레(Ikh Nuudel) 그림이 있다. 5,000투그릭과 10,000투그릭의 앞면에는 칭기즈 칸 초상이 있고 뒷면에는 과거 몽골제국의 수도인 은제(銀製) 나무가 있는 카라코룸이 그려져 있다. 20,000투그릭의 앞면에는 칭기즈 칸 초상이 있고 뒷면에는 통일된 몽골국의 위대한 백색 깃발이 그려져 있다.

이처럼 몽골 지폐 도안에는 몽골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등장한다. 먼저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이 나온다. 몽골에서도 국가의 정치 중심지인

수도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현재의 수도는 카라코룸에서 동쪽으로 400km 정도 떨어진 울란바토르다. 대형 수레와 백색 깃발 등 역사적 소재는 소액권보다 고액권으로 갈수록 많이 들어가며, 주로 몽골제국과 관련된 소재들이다. 지폐 도안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두 영웅 칭기즈 칸과 수흐바타르는 제국과 독립국(현실적으로 완충국의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이라는 각기 다른 위상을 드러낸다. 몽골의 대표적 성산(聖山)인 어트경텡게르산이 담긴 점도 눈길을 끈다. 유목민의 나라답게 몽골의 소액권에 등장하는 야생마는 몽골고원의 주인인 몽골인들의 자유와 번영을 상징한다.

야생마와 함께 그려진 몽골 에델바이스도 주목된다. 이 같은 동물과 식물의 조합은 몽골 아르항가이의 골모드 유적(기원전 2~1세기)에서 발굴된 금제 장식판에 표현되어 있는 일각수(유니콘)와 그것을 둘러싼



칭기즈 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골모드 유적에서 출토된 금제 장식판

덩굴식물과 꽃의 조화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꽃은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연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문양이며, 이 일각수와 식물 문양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양이다.³ 이를 흉노제국에 대한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몽골인들은 흉노제국을 몽골의 첫 번째 제국이라고 생각한다.

칭기즈 칸과 ‘팍스 몽골리카’ 그리고 제국의 지폐

현행 몽골 지폐 도안에서 고액권을 대표하는 모델은 몽골제국의 건국 영웅 칭기즈 칸이다. 13~14세기의 몽골제국은 유라시아 각 지역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일종의 플랫폼이었다. ‘세계사의 탄생’을 불러온 ‘팍스 몽골리카’는 중국 본토, 특히 강남에서 일어난 심원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도약을 중요한 배경으로 한다.

‘농업혁명’, ‘상업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당송 변혁기’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여타 영역에도 영향을 주었고,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 각지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3 주경미, 2022, 「흉노시대 幻想動物文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의」, 『중앙아시아연구』 27-1, pp. 44~45.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발전은 북방 초원 문명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중국 문명은 서방의 이슬람, 페르시아 문명, 인도 문명과도 영향을 주고받았다. 13세기 몽골제국이라는 세계적인 제국의 탄생은 유라시아 각 문명의 발전과 성숙 속에서 각 문명을 연결할 매개자를 요청하는 역사적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몽골제국은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거대한 교역망을 완성하고 교통-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와 문화의 플랫폼을 건설하여 ‘세계사의 탄생’을 이끌었다.

사실 당송 시기에 중국에서 지폐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자, 거래할 때 쓸 동전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이에 쓰촨(四川) 지방의 민간 금융업자는 무거운 철전(鐵錢) 대신 종이로 만든 교자(交子)라는 어음을 유통시켰다. 그 편리성에 주목한 북송(960~1127)의 지방 관료가 상인에게서 교자 발행권을 빼앗아 수중에 있던 철전으로 발행액의 상한을 정한 다음 지폐를 발행했다. 이 ‘교자’가 세계 최초의 지폐다. 지폐의 탄생은 동아시아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비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남송 시기에는 북송의 지폐 제도를 이어받아 회자(會子)라는 지폐가 통용되었다. 여진의 금나라(1115~1234)는 동화(銅貨), 은화(銀貨)와 함께 지폐를 유통시켰다. 왕조 말기에는 지폐 남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했다. 몽골제국을 세운 몽골인들은 동전 사용을 금지하고 통화를 교초(交鈔)라는 지폐로 제한하여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 전체가 지폐를 사용했다. 원나라가 지폐를 통일한 것은 5대 칸 쿠빌라이(세조) 때였다. 1260년 7월 쿠빌라이는 제로통행중통원보교초(諸路通行中統元寶交鈔) 7만 3천 정(365만 관)을 발행해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초

기에는 금 왕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폐와 은의 철저한 교환 비율을 지켰고, 지폐 발행액만큼 은을 확보했다. 그러나 말기로 갈수록 지폐를 남발하여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결국 제국이 멸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요컨대 송나라의 경제적 부상은 몽골제국이 탄생하는 중요한 기반이었고, 중원과 강남 경제에 대한 관리 능력은 몽골 제국의 안정과 지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287년에 발행된 지원통행보초 2관

출처: Ts. Batsaikhan, 2018, *Coins and Currencies of the Mongolian Empire* / The Bank of Mongolia, 186쪽

몽골제국 내에서 통용되던 교초는 현대의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칭기즈 칸과 몽골제국은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겼고 몽골인들은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한다. 칭기즈 칸은 몽골의 정신적 원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칭기즈 칸이 몽골국 지폐 도안 고액권에 등장한 것이다.

현대 몽골의 독립과 독립 영웅 수흐바타르

13세기의 몽골제국과 현재의 몽골국 사이에는 불교화의 역사와 70년간의 사회주의 시기의 역사가 존재한다. 현재의 몽골국도 체제 전환 후 이미 30여 년의 세계화 시기를 거쳤으니 그 변화 역시 작지 않다.

몽골 지폐 도안의 두 주인공 중 하나인 수흐바타르는 현대 몽골국의 원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주는 인물이다. 그는 현대 몽골을 세운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주의자로,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아 1920년 6월 몽골 인민당을 결성하고 중국 군대와 러시아 백군에 맞서 무장 투쟁에 나섰다. 1921년 7월 10일에는 몽골 인민 정부를 수립하고 국방상이 되었다. 정권을 접수한 인민당은 독립의 상징이자 종교적 권위가 높은 복드 칸을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대우하였고, 1924년 복드 칸이 사망하자 몽골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복드 칸은 몽골 독립의 상징이었다. 1911년 12월 29일 외몽골(할하)의 왕공들이 쩡춘담바 후투투 8세를 원수로 추대하고 청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때까지 복드 계겐으로 불리던 쩡춘담바 후투투 8세는 이후 복드 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복드 칸 정부가 의지했던 러시아는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외몽골의 고도 자치를 지원한다고 하고 전 몽골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몽골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1921년 2월 울란바토르에 들어온 러시아 백군 세력 지휘관인 세메노프와 ‘미친 남자’이라 불린 로만 폰 운게른 슈테른베르크의 부대가 울란바토르 전역을 점령해 버렸다. 이때 우리의 독립운동가 이태준(李泰俊, 1883-1921) 선생이 그곳에서 순국하였다.⁴ 수흐바타르 부대는 이들을 물리치고 울란바토르를 탈환했다. ‘붉은 영웅’을 뜻하는 울란바토르라는 명칭은 수흐바타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0세기 초 몽골에서 칭기즈 칸은 민족 영웅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러시아 애국주의가 고조되면서 몽골 민족주의의 발흥을 우려한 러시아인들은 칭기즈 칸을 약탈자라고 공격했다. 1949년부터 1980년대까지 몽골에서 칭기즈 칸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었고, 1990년 전후로 다시

4 1921년 울란바토르에서 운게른 부대에게 희생당한 이태준 선생은 몽골인들에게 근대 의술을 베풀어 신망을 받은 의사였다(반병률, 2021, 『대암 이태준』, 함안군: 경남).



복드 칸 궁전 박물관 태평문에 있는 톰바쉬
출처: 필자 촬영 2022.4.30.

부활하였다.⁵ 사회주의 시기에 칭기즈 칸과 함께 불교문화도 몽골 사회의 저류에 머물러야 했다. 현재 울란바토르의 복드 칸 궁전 박물관 정문에는 톰바쉬(Tumbaash, 화목한 네 동물) 도상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티베트에서 몽골까지 널리 통용되는 화합과 협력을 상징하는 도상이다. 사회주의 시기에도 이러한 이미지는 근근이 명맥을 이어 오고 있었다.

몽골제국을 창건한 칭기즈 칸과 몽골국 독립을 이끈 수흐바타르는 몽골의 국가적 원점(지향과 지위)을 상징하며, 국제정치적 게임 속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최근 몽골에서는 수흐바타르보다 칭기즈 칸을 호명하는 경우가 더 많다. 몽골국은 2022년 8월 ‘칭기즈 칸의 세계와 몽골학’이라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월에 칭기즈 칸 박물관을 개관했다. 이는 수흐바타르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이 아니

라 국제적으로 칭기즈 칸의 활용도가 더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현명한 전략가들은 수흐바타르도 칭기즈 칸만큼이나 흥미할 만한 어젠다라는 점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5 이평래, 2012, 「칭기즈 칸의 귀환」, 『동북아역사문제-주요 현안 분석』 통권 62호, p. 4.

‘팍스 몽골리카’의 현재적 의미

당초에 몽골제국의 등장은 중원과 강남의 경제적 부상과 깊은 관계가 있었고, 몽골제국은 동아시아의 다원적 천하 질서를 일원적 천하 질서로 바꾸었다. 그 체제가 계속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 시장권은 몽골제국 이후에도 확대되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국제 체제는 1840년 아편전쟁과 1895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크게 바뀌었고, 몽골은 규모가 축소된 채 독립국으로 존속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몽골의 국민국가에서는 칭기즈 칸과 몽골제국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외교 전략 수립에도 활용하고 있다.



몽골의 대표 공항인 칭기즈 칸 국제공항
출처: 필자 촬영 2022.5.14.

체제 전환 이후 몽골에서 칭기즈 칸의 이름과 이미지는 동상, 국제공항 이름, 보드카와 장식품 등에 두루 쓰이고 있다. 이렇게 칭기즈 칸이 호명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몽골에서 칭기즈 칸과 ‘팍스 몽골리카’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몽골을 둘러싼 중국의 부상과 몽골의 경제적 대외 의존도 심화, 세계화의 파행적 진행과 국제정치적 변동, 지정학적 충돌의 증대에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칭기즈 칸에 대한 역사 귀속 논쟁은 몽골의 칭기즈 칸 르네상스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판 ‘팍스 몽골리카’라고 할 수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의 향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국제 학계가 몽골제국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하반기에 발간될 ‘케임브리지 몽골제국사’는 국제 학계의 몽골제국사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학술적 성과이다.⁶

한국 사회에서도 몽골제국과 칭기즈 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몽골은 유구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 왔다. 몽골은 한국 사회와는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졌지만, 의외로 공통점과 참

⁶ ‘케임브리지 몽골제국사’는 국제적 명성이 있는 케임브리지 역사서 시리즈의 하나로 올해 출간된다. 김호동 교수와 미할 비란 교수가 주편을 맡고 있다.

조할 점도 많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도 몽골의 역사적 경험과 같은 주변국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통찰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치열하게 독립 투쟁과 국가적 생존을 모색한 현대의 몽골은 국제 관계에서 대국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 주변국과 역사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교류해야 할 상대이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참고문헌 |

- 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 은동진, 2022, 『화폐한국사』, 브레인스토어.
- 이평래, 2012, 「칭기즈 칸의 귀환」, 『동북아역사문제-주요 현안 분석』 통권 62호.
- 이평래, 2021, 「범몽골주의 연구 서설」, 『중앙아시아연구』 26-2, 중앙아시아학회.
- 주경미, 2022, 「흉노시대 幻想動物文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의」, 『중앙아시아연구』 27-1.
- Ts. Batsaikhan, 2018, *Currencies of Mongolia II*, The Bank of Mongolia.

| 박장배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아시아 변경사, 티베트 현대사를 전공했고, 시강성(西康省) 창건 과정(1903~1939)을 중심으로 한 '청말·민국 시대 중국의 변경 지배와 동부 티베트[Khams] 문제를 다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최근 연구로는 「티베트불교 문화권의 '화목한 네 동물' 설화와 도상의 확산과 활용 양상」(『동북아문화연구』 71, 2022), 「한중수교 이래 중국의 한중관계사 관련 주요 연구사업의 추이」(『현대중국연구』 24(1), 2022), 「1930년대 顧頡剛의 역사지리 인식과 변강학 연구」(『중국근현대사연구』 76, 2017)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